

換率상승...換差損 급증 작년 한해 1,619억원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제조업체들의 換差損규모가 지난 한해동안 1천6백19억2천3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환율이 더욱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연말까지는 換差損규모가 4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韓國銀行에 따르면, 84년중 환율이 연중 31원 90전이 올라 換差損이 모두 2천8백49억7천9백만원에 달했으나, 다른 한편에서 換差익이 1천2백30억5천6백만원에 달해 순換差損규모는 1천6백19억2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체의 換差損액은 84년중 국내제조업체 전체의 당기순이익 7천2백43억2천9백만원의 22.4%에 달하는 것으로 경영수지에 큰 압박요인이 되

고 있다.

특히 환율상승으로 인한 換差損이 큰 업체는 외자 및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화학업체로 그 규모가 1천61억2천1백만원에 달해 제조업 전체換差損액의 65.5%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보면, 대기업의 換差損액이 1천5백84억8천만원, 중소기업이 34억4천3백만원으로 외자를 많이 쓴 대기업의 換差損이 중소기업의 50배에 달하며,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으로 나누어 보면, 수출기업은 3백20억9천8백만원, 내수기업이 1천2백98억2천6백만원으로 수출기업은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을 전가한 반면, 내수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했다.

그는 우선 연안오염이 심한 경남 삼천포와 충남 천수만 일대 바닷물을 연구실로 떠와 이곳에 서식하는 세균의 종류를 알아내는 작업을 시작, 1백여종의 세균이 있음을 알아냈다. 그는 이 세균을 배양접시에 배양한 뒤 이들 세균들을 폐유가 섞인 바닷물에 다시 배양해 그중에서 폐유를 분해하는 세균을 골라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금박사가 이번엔 개발한 세균에 의한 폐유분해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10여년전부터 개발돼 왔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개발된 세균을 자연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 들여올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때문에 어느나라든 독자적으로 폐유분해세균을 추출해야 된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이 연구결과는 앞으로 3년 후에는 양산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廢油먹는 細菌」배양 성공 바다오염방지에 새창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廢油를 완전 분해해내는 세균 9종을 발견, 인공배양에 성공했다.

金相鍾박사(서울대 자연대미생물학과교수)는 지난 1년동안 경남 삼천포, 충남 천수만 등지에서 1백여종의 미생물을 채집, 실험 끝에 해양오염의 주범인 폐유를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해내는 바실러스, 아시

네토박티, 마이크로코커스 등 모두 9종의 미생물을 추출해 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金박사가 이 연구에 착수한 것은 작년 7월 西獨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면서부터. 그는 전공을 살려 우리나라 연안오염의 주범인 폐유를 분해하는 세균을 추출해 보라는 주위의 권유를 듣고서 연구에 착

연탄가격 3% 인상

석탄価도 1.5% 올려

정부는 지난 9월 5일 석탄값을 1.5%, 연탄값을 3% 각각 인상했다. 이에 따라 5급탄을 기준으로 한 석탄값은 톤당 3만3천7백40원에서 3만4천2백50원으로 5백10원이, 서울지역의 3.6kg짜리 가정용 연탄가격은 1백66원에서 1백71원으로 5원이 각각 올랐다.

동자부는 지난 82년 이후 연탄소비가 연평균 4.8%씩 늘어난데 비해 생산은 2.5%에 그쳤고, 탄광의

부존여건이 나빠 국내탄의 증산이 한계에 도달하는 등 국내석탄수급에 불균형이 생겨 다소나마 증산을 유도하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1만가구 도시가스공급 10월부터 도봉·구로구

오는 10월부터 서울 도봉구와 구로구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간다.

서울시는 한일개발이 도봉구 상계동에 짓고 있는 도시가스공장과 강남도시가스가 구로구 고척동에 짓고 있는 공장이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완공됨에 따라 도봉구 공릉동지역과 구로구 시흥동지역 등 1만가구에 도시가스를 10월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배관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는 도시가스가 북부권(도봉구 전역과 성북구 일부 등 48개동)과 구로권(구로구 전역과 강서구 일부 등 31개동)에 확대공급된다.

油公, 勞使단체협약 갱신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

油公은 1983년 9월에 체결된 노사간 단체협약이 1985년 9월 30일자로 그 유효기간이 만료하게 됨에 따라 이의 갱신을 위한 노사 쌍방협의의를 거쳐 1985년 9월 5일 본사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1985년 10월 1일부터 발효하여 향후 2년간 유효하게 된다.

油公, 주유소장 교육 판매·관리역량제고 위해

油公은 대리점 직영 주유소 경영자 교육을 영업기획부 주관으로 9월 6월, 7일 양일간 34개 직영주유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흥국상사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대리점 직영 주유소장의 판매 관리역량 신장과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이번 교육은 체계적인 거래처 교육 실시를 위한 시범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油公유탄유 API공인획득 국내상호로써 직접 받아

油公은 1985년 8월 19일부로 유탄유품질 등급을 판정하는 미국석유협회(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로부터 동사제품이 현행 등급상 세계 최고급인 API Service SF/CC 및 Energy Conserving Oil임을 인증받고, 이를 용기포장에 표기할 수 있는 API Service Classification Symbol 사용권한을 정식으로 인가받았다.

따라서 油公은 세계적인 권위 및 명성을 갖고 있는 공인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 및 심볼 사용 권한을 국내 상호로 직접 공식 허가받은 국내 최초의 회사가 되었다.

油公을산공장 감사때받아 도서관용 버스 기증으로

油公의 윤대옥 공장장은 9월 3일 시내 북정동 울산 시립도서관에

서 거행된 동 도서관 부설 이동도서관 개관식에서 최현집 울산시 교육장으로부터 지난 2월 6일 이동도서관용 버스를 기증한데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이동도서관 개관식은 울산시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으며, 9월 4일부터 운행을 개시한 이 이동도서관(버스)은 비둘기호로 명명되어 시간적, 경제적, 지역적 사정으로 도서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독서의식 고취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시내 20개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무료로 도서를 대여해 주고 있다.

油公, 직업훈련생 수료식 기능인력 26명 배출

油公 공장은 8월 28일 후생관 대강의실에서 노동부 울산 사무소장등 내빈과 공장 임원 및 간부, 관계교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6기내 직업훈련생 26명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이들 수료생들은 지난 3월 공개시험을 통해 유공 공장 직업훈련원에 입소, 석유정제공정에 관한 기초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 등 총 1천1백시간, 6개월의 소정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 새로운 국가기능 인력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생 중 성적이 우수한 이상호 훈련생이 노동부 울산지방 사무소장상을, 윤상순 훈련생이 공장장상을, 이용우 훈련생이 직업훈련원장상을 받았다.

또한 공장은 9월 3일 같은 장소에서 평균 16대 1의 높은 공개

시험을 치르고 선발된 제27기 사내 직업훈련생 24명에 대한 입소식을 가졌다.

油公, 산악회 설악산 등반 지난 8월 17, 18일에

油公 본사 산악회 회원 30여명은 지난 8월 17, 18일 양일간 설악산 등반을 하였다.

이번 등반에서 산악회원들은 첫날 오색약수터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새벽 6시에 오색을 출발, 10시 30분경 대청봉(해발 1,706m)에 도착하였으며, 대청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서북 능을 거쳐 오후 4시 한계령 휴게실로 하산했다.

麗水공장 방문 격려 具平會 湖油사장

具平會 湖南精油사장은 지난 8월 1일부터 4일간 麗水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사원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具사장은 8월 1일 렉키 복지관 및 렉키 麗川공장, 麗川석유화학단지 등을 시찰하고 공장에 도착하여 卍 주선 공장장으로부터 공장현황을 보고 받았다.

具사장은 또 호남탱카, 대한유조선, 여도국민학교와 중학교, 麗水에너지 등을 방문했으며, 8월 3일에는 쌍봉클럽하우스에서 4급 이화전사원을 초대, 오찬을 베풀고, 이날 저녁에는 장구미클럽에서 간부사원들을 초대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湖油, 유허회수장치 준공 공해방지와 유허회수의 일거양득

湖南精油는 麗水공장에서 비스브레이커 공정시설과 병행하여 추진중이던 유허회수장치를 완공, 지난 8월 14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새로 준공된 유허회수장치 공정은 지난 3월에 가동된 비스브레이커장치의 하류장치로서 重質油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LPG 성분 중의 황화수소(H₂S) 가스를 제거하는 아민처리장치 및 공정내에서 분리된 용수중의 H₂S/NH₃ 가스를 제거하는 Sour Water Stripper와 이 두곳에서 분리된 황화수소를 유

황으로 회수하는 장치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 약 13톤의 유허을 회수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日本 토요엔지니어링이 기본설계를 맡고, 렉키개발이 시공한 유허회수공정이 완공됨으로써 기존공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함량이 높은 가스가 거의 모두 아민처리 공정으로 처리되어 무독성의 유허으로 전환됨으로써 공해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부산물로 유허이 생산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동자부장관 표창 받아 湖油, 을지연습 우수해

湖南精油는 지난 9월 12일 동자부에서 개최된 금년도 을지연습 '85 평가회의에서 비상대책 수립업무와 을지연습 실시기간 중에 산업동원체제 확립 및 신속한 정보수립 전달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한편, 운영부에 근무하는 한영수씨도 을지연습 '85기간중 기여한 공로로 이날 동력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京仁 인천공장 정기보수 9월 7일부터 30일까지

京仁에너지 인천공장은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4일간 정유공장 원유정제공정 및 경질유 정제공

정등 정기추계보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기간중 9월 13일 최각규 사장과 맹원기전무는 정기보수중인 정유공장 현장을 방문, 품질향상과 효율향상을 위하여 정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경인의 장래 비전을 제시, 업무에 가일층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京仁, 공기예열기 설치 연간 4억원 절감 기대

京仁에너지는 금년 1월부터 착수한 원유가열로 공기예열기 설치공사를 9월말 정유공장 정기보수 기간중에 완공예정이다. 동공사는 총 7.5억원의 공사비로, 배기로 방출되고 있는 기준가열로의 배기가스를 공기예열기내 열교환을 통해 열효율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것으로 연간 약 4억원

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京仁, 민·관합동소방훈련 '85 을지훈련의 일환으로

京仁에너지는 지난 8월 23일 '85 을지훈련의 일환으로 안전회 인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 유류탱크 화재진압을 위한 관·민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적의 기습공격과 돌발적인 불의의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가상한 이번 소방훈련에는 160명의 인원 및 18대의 신예 소방장비가 출동하여 평소 잘 훈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와 조기진압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京仁, 공장정화 표어공모 정화운동 확산 위해

京仁에너지는 정화운동을 보다 심화,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 8월에 정화표어를 공모하였는데 입상자 및 작품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작: 정비부 홍익선 "책임지는 풍토속에 확립되는 신뢰사회"

우수작: 생산부 김창호 "바른마음 바른행동 밝은사회 밝은내일"

우수작: 발전부 황순옥 "인화단결 웃음속에 밝아지는 기업미래"

雙龍, 무사고 백만시간 연속200만시간에 도전

雙龍정유 온산공장은 지난 8월 22일 오후 3시를 기해 제2차 무사고 100만인시(人時)를 돌파했다.

이승원 사장은 제2차 무사고 100만시간 달성 보고를 받고 온산공장에 축하 전문을 보내 『제2차 무사고 100만시간 달성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이번에는 꼭 연속 무사고 200만시간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雙龍, 34건 제안 채택 2·4분기 사원제안중

雙龍정유 공장제안심의위원회(위원장: 공장장)는 지난 8월 9일 2·4분기중 관리실에 접수된 사원제안 85건에 대한 심의에서 34건을 채택하고 나머지 51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갖고 보류와 미채택 제안을 가려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부서별 제안내용에 대한 담당 부장들의 설명과 토의, 검토를 거쳐 34건이 최종 채택 제안으로 확정된 것이다.

雙龍, 에너지절감 순조 상반기 실적분석결과

雙龍정유 온산공장은 8월 9일 올해 상반기 에너지절감(ENCON) 실적분석회의를 갖고 기준연도인 81년 대비 '85상반기 누계 절감목표 13.02% 보다 0.04%를 초과한 13.06%를 확인했다. 따라서 85년말 목표로 설정했던 13.90%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반기 에너지절감 실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은 그동안 △등유·경유 탈황공정의 열사용 설비에 대한 대규모 청소작업 실시 △수소제조공정의 수율향상 △페열의 적극 회수 △주요 보일러의 효율극대화 등으로 분석됐다.

동자부장관 표창 받아 極東, 을지연습 '85와 관련

極東석유는 지난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을지연습 '85에서 사장 이하 전 임직원의 헌신적인 참여로 국가산업동원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9월 12일 동력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지각없는 외제선호

부리썩는 경제질서